P47

영주지역 초·중·고생 집단 뇨검사 소견

이상수*·박관규·박성배·김현철 계명의대 신장내과, 신장연구소, 영주시 보건소*

배경: 만성 신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의 하나인 만성 사구체 신염은 대부분 소아기부터 발병되어 무증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 성인에 이르러서 만성 신부전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증상이 없는 초·중·고생의 집단 뇨검사를 통해 뇨 이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다 치료가 어려운 만성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하는 것은 국민 보건 향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방법의 하나로 지역 보건소가 행정력과 기초 검사를 통한 뇨이상자 선별을 하고 지역의 종합병원과 연계하여 확진과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들 환자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대상 및 방법: 영주지역 초·중·고생 42개교 18,660명을 대상으로 경상북도 학교 보건 협회의 협조로 집단 뇨검사를 시행하였다. 뇨검사에서 양성인 자는 현미경적 검경을 통해 6개월간 추적 관찰하여 그 이상이 지속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인 질환의 규명을 위해 병력 청취, 진찰, 24시간 뇨단백 정량검사, 신기능 검사, 방사선학적 검사 및 신생검을 실시하였다.

결과: 대상자 18,660명중 0.38%(70명)가 집단 뇨검사에서 잠혈 또는 단백뇨 양성자였다. 70명중 39명(56%)이 반복 뇨검사에서 음성으로 전환되었으며 전학 또는 취업으로 추적관찰이 불가능한 예가 4례(5%)였고, 지속적 뇨이상을 보인 경우가 27예였다. 27예의 원인 신질환으로는 미세혈뇨 10명, 경증 단백뇨 7명, 세기저막 질환 3명, Ig A신증 2명, 그리고 미소 병변, 선천성 신요로계 기형, 당뇨병성 신증 각각 1명이었고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못한 무증상적 혈뇨 및 육안적 혈뇨 각각 1명이었다.

결론: 지역 보건소가 행정력 및 기초 검사를 이용한 선별 작업을 하고 지역 대학병원이 신조직 검사등의 정밀 검사를 통해 진단을 한다면 만성 신부전의 원인이 되는 만성 사구체 신염을 조기에 진단하여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서 만성 신부전으로의 진행을 예방내지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집단 뇨검사를 통한 뇨이상의 조기 검출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다면 국민 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P48

고연령층에서 사구체질환

한승엽, 강미정, 황은아, 박경대, 박성배, 김현철, 박관규[1]
계명의대 내과, 해부병리학[1], 신장연구소

고연령층에서 사구체질환은 기존 신질환 혹은 전신성 질환에 의해서 흔히 발생하나, 이들 환자들의 전신적 상태와 신생검의 합병증 발생의 위험 때문에 병리 조직학적 분석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계명의대 동산병원에서 1991년 2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사구체질환으로 신생검을 시행한 만 65세 이상의 고연령층 환자 42예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상 및 병리조직학적 소견을 분석한 성적을 보고 하는 바이다.

연령별로는 65-70세 22예(52.5%), 70-75세 16예(38.1%), 75세 이상 4예(9.5%)이며, 평균연령은 69.4세였다. 신생검당시의 임상소견으로는 신증후군 28예(66.7%)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단백뇨 및 혈뇨 8예, 신장 기능부전 2예, 급성사구체 신염 1예, 급속 진행성 사구체신염 1예, 낭창성 신염 1예 및 이식신 1예 였다. 병리조직학적 소견으로는 미세변화형신증후군 11예(26.2%)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막성 신염 8예, 초점성 분절성 사구체신염 7예, 아밀로이드증 4예, IgA 신염 3예, 막증식성신염 2예, crescent 신염 2예, Wegener육아종 1예, 낭창성 신염 1예, HBV연관 사구체신염 1예, 경쇄질환 1예 및 급성거부반응 1예 였다. 미세변화형 신증후군으로 진단된 11예 중에서 스테로이드 투여치료를 10예에서 시행하여 9예에서 단백뇨의 완전관해가 있었고, 나머지 1예는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 하지 않아서 스테로이드제제 투여를 중지하고 cyclosporine-A를 투여하여서 단백뇨의 부분관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상의 성적으로 고연령층 환자에서도 사구체질환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또한 젊은 연령층과 유사한 임상상을 나타내므로, 고연령층 환자에서의 사구체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신생검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